

인 · 터 · 뷰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교육원 조철훈 원장

“기본에 충실한 인재 길러내는 데 주력”

원자력교육원의 설립 취지는 무엇인지.

한국수력원자력은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으며, 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성상 다양한 보호설비와 안전설비가 2중 3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1976년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교육과를 신설하고, 1979년에 고리연수원을 설립하면서 이전에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에 의존하던 기술인력 양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자력발전소 운영호기 증가에 따라 연간 교육인력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약 5,000여명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은 어떤 것인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안전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은 크게 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운영인력의 안전의식의 제고에 있습니다. 우리교육원에서는 운영인력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육훈련과정에 인적행위의 이론과 실제, 아차사례 및 인적실수 방지대책, 관리감독자의 관찰기법, 사건·사고사례의 분석을 통한 안전저해요소 제거 등 회사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를 증진하는 교과목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모든 종사자의 안전관련 관행의 개선, 우수한 원전 선진국들의 안전문화를 전파 및 확산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안전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는지.

발전소의 안전은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서 최고전문가로서 역할을 발휘하는 것 못지않게 발전소 운영을 위한 법규와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조직과 회사를 먼저 생각하며, 개개인의 행위가 조직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소위 기본에 충실한 인재이며, 우리 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교육원의 비전은 ‘세계 최우수 원자력 전문 교육기관’으로, 원자력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국내외 어느 교육기관보다 앞선 교육훈련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요원의 확보와 교수 역량의 꾸준한 향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들을 원자력교육원의 교수로 선임하고, 또한 현행 교수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